

자랑스런 선조(先祖)

- 문희공 우탁 덕(德)과 업적(業績) -

문희공(文僖公, 八세) 휘(諱)는 탁(倬)

[자(字)는 천장(天章) 관(官)은 성균관좨주(成均館祭酒) 호(號)는 역동(易東), 백운당(白雲堂)]

I 생애(生涯)

역동의 명은 우탁이요, 자는 천장(天章)이며, 호는 단암(丹巖) 또는 백운당(白雲堂)이시다.

역동은 단양(丹陽)사람으로 고려 원종(元宗) 3년(一二六二년) 단산군(丹山郡) 서북리(西北里) 금수산(錦繡山) 칠성봉(七星峯) 아래 신원리(新院里) 현, 충북 단양군 적성면 현곡리에서 향공진사(鄉公進士) 천규(天珪)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어려서부터 성품과 지조가 곧고 바르며 천품이 청민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고려 충렬왕 4년(一二七八년) 17세의 어린나이로 향공진사에 뽑혔고, 충렬왕 16년(一二九〇년) 29세 때 과거에 합격(지공거 정가신 주관)하셨다. 과거에 합격한 다음해 충렬왕 17년(一二九一年) 영해사록(寧海司錄)으로 임명되었고, 그 후 진주목사(晉州牧使)를 비롯하여 여러 곳의 지방관을 역임하셨다.

그리고四十세 이후(연대는 분명치 않음)에는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직책인 감찰규정(監察糾正)에 제수된 바 있었으며, 한때 벼슬을 사임하고 단양에 돌아가 학문에 전념하고 있을 때 성균관좨주(成均館祭酒)를 제수 받게 되어 정주성리학을 강명하여 여말의 유학을 크게 진흥시킬 수 있었다. 또한 성균관관주(成均館館酒)의 자리를 끝으로 늙었음을 평계하고 물러나, 예안(禮安)에 돌아가 후진교육에 전념하면서도 조정에 선 것과 똑같이 스스로 모든 행동이 법도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고, 충숙왕이 여러 차례 불렀으나 끝내 나가지 않고 있다가 충혜왕 3년(一三四二년) 二월 七일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니 도학과 문학이 뛰어나 문희공(文僖公)의 시호가 내려졌다.

역동은 일찍이 당대의 유학자로 이름 높았던 회현(晦軒) 안향(安珦)의 문하에서 수업을 받았으므로 일찍부터 주자학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안향은 충렬왕 14년(一二八八年) 원나라 북경(北京)에서 《주자전서(朱子全書)》를 얻어 보고 공자학(孔子學)의 정맥이라 생각하여

그 글을 초록해 내옴으로 성리학 전래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분이기 때문이다. 역동의 스승이었던 회현(晦軒)은 항상 말하기를

“문하에 수업한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르고 있으나 그 도를 깨닫고 이어받는 선비로는 오직 역동을 비롯하여 덕암(德菴) 신천(辛菴), 상당(上黨) 백이정(白頤正), 국재(菊齋) 권보(權溥) 등 네 사람뿐이다.”

라고 했다.

이것은 그가 역동의 학행을 높이 평가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역동을 맞이할 때는 제자였지만 가장 정중히 대했었다고 한다. 한 예로 어느날 스승이 병석에 계실 때 스승을 뵙기 위해 역동과 상당, 국재 세 제자가 병문안을 간 일이 있었다. 그때 회현은 백이정이나 권보에게 “그대들은 연상(年上) 또는 동년배라고 부끄러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탁(역동)을 나와 똑같은 스승으로 섬기라”고 당부까지 하여 안향의 제자들이 역동의 문하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 한다. 이것은 새로운 사상적 전환기를 만든 성리학의 전래보급에 역동의 학문적 공로가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이를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다음과 같은 역동서원봉안문(易東書院奉安文)에서 보면 확실해진다.

정부자의 《주역전(周易傳)》이 이 나라에 처음오니
아는 사람 전혀 없이 봐도 모경(髦梗) 같았었네.
선생님이 없었다면 그 누구가 성구(省究)하리
문을 닫고 궁연(窮研)하여 결정정미(潔淨精微) 찾아냈네.
공자십익(孔子十翼) 연역하고 정자의 전 주로 삼아
의(義)와 이(理)에 전력하여 천충(天衷) 모두 발휘했네.
깊은 맛을 숙완(熟玩)하여 빠짐없이 달통하니
아는 것은 더욱 밝고 지킴 더욱 정(正)하도다
이것으로 교인(教人)하니 덕업으로 다툼 없고
찾는 학자 문에 가득 자란 난초향기
역리학(易理學)을 처음 행해 사기(史記)에도 사실 썼네.

라고 하여 역동의 학문적 업적과 인품을 높이 찬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문묘서원을 설치하고 봉향했으니 퇴계 이황에 의한 역동서원을 비롯하여, 단암서원(丹巖書院), 단산서원(丹山書院), 도동서원(道東書院) (후에 구계서원(龜溪書院)으로 개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역동의 인품을 말해주는 것으로는 만년에 복주(福州)의 예안현 서남

오리 낙강(洛江)의 상류 비암(鼻岩)의 오른편 [현, 안동군(安東郡) 와룡면(臥龍面) 선양리(宣陽里) 지금은 댐의 건설로 수몰됨]에 거하셨으므로 그곳 지명을 지삼의(知三宜) 또는 지삼리(知三里)라고 했다하니, 이는 역동의 도학, 충의, 절조의 삼덕(三德)으로 후세를 교육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전해지고 있다 한다.

이런 일들로 볼 때 고려 말 흐트러진 사회기강을 성리학적 사상을 기초로 새롭게 세워보려 노력, 이를 몸소 실천하였으며, 후세에 모범을 보여 조선시대에 새로운 사상적 기반을 마련한 분이었다 하겠다.

II 사상(思想)

1. 의리론(義理論)

역동은 유학의 근본정신인 의리(義理)를 관직생활을 통해 몸소 실천한 분이다. 그의 관직생활에서 이를 살펴보면 十七세 때(충렬왕 四년, 무인(戊寅),一二七八년) 향공진사로 뽑혀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으로 있다가 二十九세 때(충렬왕 十六年 경인(庚寅),一二九〇년)에 지공거 정가신 주관의 과거에 병과로 합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선 숙종 때 대사관 이선(李選)이 경연(經筵)의 자리에서 왕께 아뢴 것을 보면 ‘고려 죄주 우탁이 등과하여 받은 홍패가 안동의 역동서원에 있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을과(乙科) 이상에 급제한 것으로 보아 을과(乙科) 이상에 급제하신 것으로 보인다.

역동의 관직생활은 홍문관수찬을 비롯하여 영해사록, 단산사인(丹山舍人), 진주목사와 구군의 지방관 및 감찰규정과 성균관좨주를 지낸 바 있다. 특히 그의 관직생활 가운데 크게 두드러진 두 가지 사건이 있었으니, 첫째는 삼십세 때 영해사록에 임명되었을 때 음사(淫祠)와 사찰(寺刹)을 정리하여 민심을 안정시킨 일이며, 둘째는 감찰규정으로 있던 충렬왕 三十四년(충선왕 즉위년, 무신(戊申) 一三〇八年) 충선왕의 실덕(失德)을 보고 직간하여 왕도를 바로잡은 일이다.

이로써 역동이 관직생활을 통해 실천한 유학정도로서의 의리론을 알 수 있어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유학정도(儒學正道)의 실천

성리학에 정통했던 역동이 영해사록에 임명되었을 때였다. 그 곳에는 팔령(八鈴)이라 부르는 요괴한 신사(神祠)가 있어 백성들이 귀신에 유혹되어 제사를 대단히 번거롭게 지내고 있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당하는 피해는 커다. 백성들을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고는 편안하게 지낼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유생들과 함께 사졸들을 보내어 신사를 훼파하여 바다에 던져 버리고 백성들을 음사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니 민심이 안정되고 고을이 편해졌다.

그 후 진주목사를 비롯하여 아홉 고을의 관장으로 있으면서 각 고을마다 백성을 미혹하는 음사를 훼파하여 유학의 정도를 실천하는 일에 계을리 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여말에 일기 시작한 척불운동(斥佛運動)의 시초가 되었고, 숭유(崇儒)의 기반을 닦은 시도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역동에게 사숙(私淑)했던 가정(稼亭) 이곡(李穀)의 다음과 같은 시를 통해서도 쉽게 역동의 치적의 나취를 찾아볼 수 있겠다.

진주고을 풍류는 영남에서 으뜸이니
장원루(壯元樓) 아래 감도는 물결 남빛 같도다.
원님으로 나가심에 오직 바라는 이 많아
부내(府內)에는 지금 다시 치암(恥庵)이 있는 것 같도다.

라고 하여 수령이 되어 나아감을 보고, 푸른 물결 더욱 푸르게 풍속을 바로잡음은 물론 치암 보다 더 훌륭한 정치를 해줄 것으로 믿었던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역동의 영해사록 시절에 보여 주었던 유학정도의 실천을 기대하고 바라던 백성들의 한 소망을 담아 읊은 것이라 여겨진다.

공자도 자로(子路)가 귀신 섬기는 일에 대하여 물었을 때, “사람을 섬기는 일에는 능하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기겠느냐?”고 말하였다. 이것은 바로 유학의 근본이 사악한 귀신이나 섬기는 일에 미혹되어서는 안 됨을 가르친 것으로 오직 인간을 존중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목민관이 될 것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역동은 관직생활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을 몸소 실천하여 그 시범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충간(忠諫)의 의리(義理)

유학의 근본 속에는 국태민안을 위한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도리가 줄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인으로서의 최상의 덕목을 군신유의(君臣有義)에 두고 임금을 위해 충간하다가 죽는 것을 마땅한 도리로 생각하게 했던 것은 바로 역동과 같은 충의에서 비롯된 것을 보게 된다.

즉 역동이 관직생활을 통해 보여준 충간의 의리는 역동의 가장 가치 있는 훌륭한 지식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기록은 많은 문헌에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몇 편을 가려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을 보면,

감찰규정으로 계실 때 충선왕이 숙창원비(淑昌院妃 : 부왕의 후궁)와 간음을 하였다. 탁이 흰옷을 입고 도끼를 가지고, 거적자리를 메고 대궐에 나아가 상소를 하여 감히 간을 하니 근신이 소장을 펴보고는 읽지를 못하였다. 탁이 성이 나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그대들은 가까운 신하가 되어서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아 올리지 못하고 이와 같은 탁한 일을 만나게 하니 그대들은 그 죄를 아는가” 하니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두려워서 떨었고 임금도 부끄러워하는 빛이 있었다. 후에 예안현에 물러나와 한가롭게 살아갈 때에 충숙왕이 그 충의를 가상히 여겨 두 번이나 벼슬을 주려고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충선왕이 원나라로부터 충렬왕 상사(喪事)에 달려와 즉위한 후에 빈전(殯殿)에 제(祭)를 올리고 드디어 김문연(金文衍)의 집에 행행(行幸)하여 숙창원비와 더불어 상대하여 한참 지나니 사람들이 비로소 의심하였다. 또 김문연의 집에 행행하여 간음하니 비는 문연의 매(妹)다. 이튿날 감찰규정 우탁이 흰옷을 입고 도끼를 들고 거적을 뚫어가지고 상서하여 감히 간을 하니 임금의 측근 신하들이 소장을 펴보고 읽지를 못했다. 탁이 성이 나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경은 근신이 되어 임금의 잘못을 능히 바로잡지 못하고 이와 같은 악을 만나게 하니 경은 그 죄를 아는가?” 하니 좌우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고 임금도 부끄러워하는 빛이 있었다.” [동국통감(東國通鑑)]

라고 했다.

이와 같은 기록은 《동국촬요(東國撮要)》,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 《여지승람(輿地勝覽)》, 《여조명신록(麗朝名臣錄)》 등에도 보이고 있어 《고려사열전》의 내용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것은 역동의 충의를 대표한 사건으로 유학자들의 사표가 되어 조선시대 많은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대학자이었던 퇴계 이황은 역동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역동서원을 설립하고 그 기(記)에서 쓰기를,

“선생의 충의대절은 이미 천지를 움직이고 산악도 흔들 수 있을 만하고 경학의 밝음이나 진퇴의 정당함은 보통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바이었으니, 후학의 사범이 되어 백세의 묘향을 받아야 할 이가 선생이 아니고 누구시겠는

가?”

라고 했다.

또한 후일 종사(從祠)를 청한 팔도유생들의 상소문에서도

충선왕이 일찍이 실덕한 바가 있었는데 탁이 도끼를 들고 속고(束藁)하고 글을 올려 감히 간을 하니 근신들은 소장을 펴보고 읽지를 못하므로 탁이 소리를 높여서 말하기를 “경들은 가까운 신하로 임금의 잘못을 보고도 능히 바르게 고쳐드리지 못하는가?” 하니 좌우의 신하들은 모두 두려워하였고 임금도 너그러이 받아들여서 행실을 바르게 고치니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홀륭하다고 했다.

라고 했다.

그 외 후학들이 공(公)을 추모하는 시편에서도 특히 충의를 높이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은 예안 땅을 지나며 역동의 충간을 생각하며 시를 남겼으니

“고려의 오백년간 저축된 운수인가
쇠한 말년에 이 같은 현인 날줄이야
왕정에 도끼드니 진정한 당개(唐介)이고
초옥서 경전연구 참으로 정현(鄭玄)이세.”

라고 하여 역동이 충선왕을 충간한 기개를 중국 송나라 때 전중어사(殿中御史)로 재상 문언박(文彥博)과 간관(諫官) 오규(吳奎)를 탄핵했던 당개와 같이 생각했고, 또한 동방의 유종으로 추앙받고 많은 제자들을 배출시킨 그를 중국 후한 때 당화(黨禍)를 피하여 벼슬을 버리고 문을 닫고 학업을 닦아 많은 저서와 천여 명의 문도를 거느렸던 정현과 같이 생각하여 찬양한 시를 지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역동의 의리론은 그의 관직생활을 통해 몸소 실천에 옮겨 후세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학문적 계통과 함께 역동의 중요한 사상의 일면이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2. 성경론(誠敬論)

가. 학문적 계통

역동의 학문적 계통은 정주성리학(程朱性理學)을 강해한데서부터 출발했음을 알게 된다.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정자(程子)의 역전(易傳)이 처음 우리나라에 건너왔을 때에 능히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탁(倬)이 문을 닫고 한 달여 연구하여 생도들에게 가르치니 이학(理學)이 비로소 행하여졌다.

라 했다.

그리고 또 『동국유사』의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에 역이 없었는데 선생이 중국에 사신으로 들어가 원나라 순제에게 아뢰어 말하기를 ‘신의 나라에 역이 없습니다’ 하니 천자가 말하기를 ‘그대는 역리(易理)에 통달했는가?’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비록 널리 통하는 군자라고 하더라도 어찌 역리에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역은 이학이 두뇌이니 바라옵건대 한번 보여 주십시오’ 하였다. 이에 천자가 역을 주니 선생이 옥하관(玉河關)에 나와서 불을 밝히고 하룻밤을 읽고 이튿날 돌려주니, 천자가 말하기를 ‘모두 읽었는가?’ 하여 대답하기를 ‘거의 섭렵을 했습니다’ 했다. 순제가 배송(背誦)하게 하니 선생이 모두 외우는데 막히는 곳이 없었다. 순제가 놀라서 칭찬하여 말하기를 ‘아름답다. 적고 치우친 나라에 두기는 아깝다. 주부자가 다시 동방에 태어났도다’라 하였다. 선생이 환국하여 시송(詩誦)하고 조금 의심나는 곳이 있어 문을 닫고 한 달쯤 연구하여 이에 해득하고 이듬해에 중국에 보내어 본역(本易)과 서로 대조하여 보게 하니 한자도 차오가 없었다.”

라고 했다.

그 외에도 역동의 학문을 논하는 이마다 역리에 능통했음을 듣지 않은 이가 없다. 권양촌(權陽村)은 ‘우탁은 경학과 사학에 통하고 더욱 역학에 깊어 문을 닫고 연구하여 생도들을 가르치니 이학이 비로소 행해졌다’고 했으며, 또한 퇴계선생은 중국사신 허국(許國)과 위시량(魏時鳩)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들이 묻기를 ‘동방에 공맹의 심학이나 기자(箕子)의 주수(疇數)를 능히 아는 이가 있는가?’ 했을 때, 그는 기록하여 보이기를 ‘고려 때의 우탁, 정몽주(鄭夢周)와 조선의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 이언적(李彦迪), 서경덕(徐敬德) 등이라 했다’라 한다. 또 조선시대 기대승(奇大

升) 같은 이는 우리의 학문이 사장(詞章)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고려 말 우탁에 이르러 처음으로 성리의 학문이 있음을 알게 해준 데서부터 기인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여말의 학문적 흐름을 사장에서 벗어나게 한 이학적 학통은 중국 정자나 주자 성리학적 계통을 이어받아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유학적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한 역동으로부터 라고 할 수 있겠다.

나. 성경문답(誠敬問答)

역동의 사상은 관직생활을 통해 실천으로 보여준 의리론과 저서를 통해 나타나는 성경론으로 함축될 수 있다. 역동의 학문적 업적은 그가 저술한 것들로 성리학의 오지를 찬한 《초학계몽편(初學啓蒙編)》 《도수편(徒酬編)》 《역론(易論)》 《역설(易說)》 《가례요정편(家禮要精編)》 등이 있었다고 하나 안타깝게도 화재로 인해 현재 전해오지 못하고 있다.

다만 몇 편의 시구와 서간 일부가 남았으며, 다행히도 그의 수제자였던 영해(寧海)에 있는 신현(申賢)의 후손 집에 전해 내려온 원운곡(元耘谷)이 찬한 《화해사전(華海師全)》에 역동과 신현과의 성경문답이 수록되어 있어 이를 통해 단편적이나마 역동의 학문과 사상을 살펴볼 수 있겠다.

이 책에 보면 신현이 역동에게 성경성학(誠敬聖學)을 물었을 때, 그가 성경에 대해 말하기를,

“생지(生知)의 성(聖)은 천도이고 생지로부터 이하의 학문을 이르는 것은 인도다. 그런즉 성은 천도나 인도나 모두 같지만 경(敬)은 인도에 있어서 마땅히 행하는 바에 연유한 즉 그런 것이요. 천도에 있어서는 무엇으로서 경체(敬體)를 지적할 수 있겠는가? 또 성인을 보면 성의 관대함이 지극한 성의 도가 된다. 스스로 주장함이 있으되 다만 자연히 순수하여 이미 쉬지 않음이 없다. 진실되어 망령됨이 없이 화할 따름이요, 하는 것이 있어 화하지 아니한 즉 이것이 묘가 된다. 그래서 억지로 힘을 가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천도이며 성이다. 경으로서 이르는 것이 천도에 이르게 됨이 어찌 이에 이르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여 성을 천도(생지의 성)와 인도(생지 이하의 성)로 구분, 모두 같은 것으로 보아 성의 경지에 이른 요체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은 인도의 경우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천도의 경우 그 경의 체가 됨을 말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천도는 경의 체가 인도는

경의 용이 된다고 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견해는 이미 《중용》에서 보이는 성과도 같은 것을 볼 수 있으니 《중용》에서 말하는 성은 바로 하늘의 도요. 성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라고 한 것을 말한다(誠者 天地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즉, 성은 사물의 처음이요 끝이니 성이 있지 않으면 사물이 없다(誠子 物之終始 不誠無物)고 한 것은 우주와 인간의 모든 것을 성에 귀결시키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경은 인간적 수련에 중요한 방법으로 채택되어 무자기(母自欺)라든지 〈계신공구(戒慎恐懼)〉와 같은 것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경은 본래적인 자아를 회복, 자기로 하여금 도의 온전한 주체에게 하는 길이며 동시에 천에의 신앙을 행하는 길로 성의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자도 그의 〈중용장구〉에서 말한 것을 보면 성은 진실무망으로 천리의 본연을 이른 것이라 했다. 그리고 그 설명으로 ‘一이면 순이요, 二면 잡이다.(일은 전일을, 이는 분기를 의미함) 순이면 성이요, 잡이면 망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역동이 성경을 천리의 진실에 이르기 위한 노력으로 보고 오랜 수양을 통해 이를 수 있는 것을 강조한 것과 같다 할 것이다.

인간에게서 성은 내면적 주체성을 갖는 것으로 사물과의 교섭에서 드러나는 진실이기 때문에 ‘불식(不息)’이요, ‘무식(無息)’인 것이다. 즉 지성은 천과 같으므로 천행이 불식하듯 지성 또한 불식이다. 불식의 성은 천도로 만물의 영원한 생성진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 천도를 경의 체로 보았던 것이다. 이에 대한 제자 신현의 동조(同調)를 보면

“도가 유행하여 변화하는 묘는 성이 그러한 것이고, 도가 유행하여 변화시키는 것은 경의 체입니다.”

라 했다.

“이때 역동은 신현에게 되물어 성경(誠敬)에 대한 생각을 더욱 굳게 다져 나가고 있다. 이를 보면 군이 이미 성경이 바로 성분상(性分上)의 것으로서 이 마음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소이묘(所以妙) 소이실(所以實)이라고 말하였는데, 현우(賢愚)를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다 이 성은 있으니 하우(下愚)에 있어서도 역시 성경이 있을 터인데, 군자가 되지 못하니 어찌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분명히 그 까닭을 말하여 자포자기하는 자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함으로써 만일 돌이키는 자가 있다면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신현은 대답하기를

“우주만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순수하고 뛰어난 이기(理氣)를 얻었으므로 그 형체가 머리는 하늘을 본받아 둥글고, 발은 땅을 본받아 모나서 평정진립(平正眞立)하여 횡생(橫生)의 금수와 역생(逆生)의 초목과는 전혀 다르니 비록 하우(下愚)라 하나 어찌 성이 없겠습니까?”

라고 하여 맹자의 성선설과 동일한 결론을 유도해 냈다.

이렇게 역동은 도를 행함에 난이의 차이는 있지만 기풍의 구애를 벗어나 사람들은 한결같이 도를 알고 행하는 궁극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아 학문적 수행은 성에의 도달을 위한 하나의 규범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이기에 관해서는 그의 제자 신현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유도해 냈으로 분명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를 보면

“대개 말하기를 이(理)는 유위유화(有爲有化)의 존재가 아니고 다만 소이연(所以然)의 묘일뿐이며, 기(氣)는 유위유화의 존재로 활발 운용함으로써 이는 무변(無變)이오, 기는 유변(有變)이나 기변(氣變)과 이변(理變)은 형질면의 사람에게서 기에 국한된 마음이다. 고로 현우의 나누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것은 우주의 모든 생성변화가 움직이는 기의 작용이고, 또 그 기가 그것을 따라 작용하는 것이 이가 됨으로 이를 체로 기를 용으로 구별하는 것이지, 결코 체가 본체이고 용이 현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정이천이나 주자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 전이하여 교수한 것을 알게 한다.

이렇게 성경문답을 통해 정주학을 전이, 교수한 결과 후대 퇴계와 윤곡의 이기론을 중심으로 한 성리학 발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III 문학(文學)

1. 유작(遺作)의 산실(散失)

유학의 전래는 삼국사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 신문왕대 국학(國學)을 설립하고, 오경(《논어(論語)》, 《효경(孝經)》, 《예기(禮記)》, 《주역(周

易)》, 《좌전(左傳)》)을 공경 대부의 자제들에게 가르쳤다는 데서부터 연유되고 있으나, 《주역》의 뜻은 워낙 심오하여 제대로 푸는 이가 없었다 한다.

그러던 것이 중국 송대에 내려와 정이천(程伊川)이나 주자(朱子)에 의해 새롭게 해석된 성리학이 여말에 이르러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을 때 비로소 역동에 의해 그 뜻을 깨쳐 후대유학자들에게 교수되었다. 이와 같은 성리학의 심오한 뜻을 깨친 역동은 역시 많은 저서를 남겼다고 했다. 이에 공(公)은 학문적 업적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을 보면,

“충목왕 三년(一三四六)에 이곡(李穀)·이제현(李齊賢) 등과 더불어 편년강목(編年綱目)을 찬정하였고, 이어 성리학의 요지를 찬한 《초학계몽편》, 《도수편》, 《역론》, 《역설》, 《가례요청편》 등을 저술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이 책들이 화재로 없어졌고, 다만 몇 편의 시구와 서간일부만이 남아 전해 내려오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역동의 저서로는 성리학에 관계되는 것들로 《초학계몽편》 《도주편》 《역론》 《역설》 등이 있었고, 또한 당시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상례(喪禮 : 유학자들까지 불교의식을 따르는 경향)에 대해 충렬왕에게 수차 상소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혼상례를 연구하여 펴낸 《가례요정편》이 있어, 중국 주자가례에 의거한 우리나라 최초의 예서(禮書)의 효시가 됐다. 이로서 예학창도의 중요한 구실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부전되고 있어 그 자세한 내용들은 알 길이 없다.

이와 같이 소중한 문헌들이 불에 타서 없어진 일에 대해 역동의 제자이며 신현과의 친한 벗이었던 원천석(元天錫)은 그가 남긴 《원운곡습유편(元耘谷拾遺編)》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오호라! 문성(文成)의 문하에 우 선생 역동의 학문은 제자(諸子)보다 탁월하여, 당시의 동문인 동배인 등의 무리가 복종하여 스승으로 섬기지 않은 사람이 없었거든... (중략) ...당일 제자의 문하에 성명을 열거한 자치고 누구라서 역동을 종사하지 않았으랴마는, 이에 자손배의 신문정가(申文貞家)를 멸망시키는데 동조했던 자들이 악의 동지자로서 협력하여 악행을 한 것이고, 또 정도전(鄭道傳)을 추종하는 자들이 자기 주인을 배반함을 혐의하는 한, 독이 천 가지 교사한 기틀을 합하고 만 가지 간악이 한길로 모여 신(申)·우(禹) 양가의 멸망을 이루어 다하였으나, 후일에 일머리를 아는 군자가 역동

의 문하에 홀로 제자록(諸子錄)이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며 아마 그 당일의 간악한 무리들이 한 것이 너무나 심하였음을 알 것이다.”

라고 하여 정도전의 무리들에 의해 제자록까지 모두 없애 버려졌음을 알게 하고 있다. 그는 다시 이어서 오은(梧隱)의 말을 빌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슬프고 혹독하다. 선생이 신(申)선생 부자로서 제자를 삼았고, 양호(養浩)의 세대에 이르러서는 신 선생 부자를 스승으로 섬기었거늘 하물며 또 스승의 현덕이나 상전(上典)과 세주(世主)의 견고를 위하여 화난(禍難)을 일으켰겠는가? … (중략) … 자손이 성씨를 숨기고 이름을 숨기어도 장차 모두 멸망할 형편이며 문헌과 문적마저 다 함께 불에 타 잣더미로 이루어, 전하는 것이 없으니 통탄스럽고 애석하도다.”

라고 하여 문헌과 문적이 불에 타 없어진 것을 애석하게 여기고 있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대 성리학의 대가였던 역동의 작품들도 함께 소실되었을 것은 분명한 일로 그의 문학적 깊이를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애석할 뿐이다. 다만 한시 작품 〈잔월(殘月)〉 한 수와 안동 영호루(映湖樓)에 현판으로 걸려 남아 있는 〈제영호루〉 한 수와 수미(首尾) 양구가 빠진 채 전해지는 강행(江行) 한 구가 있고, 《진본 청구영언(珍本青丘永言)》에 단가 한 수와 《해동가요(海東歌謠)》 등에 단가 한 수가 전해오고 있다.

2. 단가(短歌) 두 수(首)

이에 역동의 단가 두수를 소개하며 그 시조에 담긴 뜻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듯 불어 간디없다.
적은 덧 빌어다가 마리우헤 불리고져
귀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이 시조는 사철이 자연법칙에 따라 순행하며 사시가 바뀜에 따라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 귀밑에 서리가 내린지 오래라. 이에 해묵은 서리(늙음)를 녹

여 보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이요 본성이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순리로 흰머리를 검은머리로 만들어 보고 싶은 솔직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한손에 막대잡고 또 한손에 가시잡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터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 시조에서는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즉 동고금을 통해 불로장생을 꿈꾸어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장연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아무리 가시로 막고, 막대로 치려해도 오는 백발은 막을 길이 없다. 인간의 한계를 자연의 순행에 맞춰 노래한 우주론적 원리가 담긴 시조라 하겠다.

초기의 시조작품으로 우주의 원리를 사상적 근거로 출발하게 한 것은 역동의 높은 학문적 기초위에 세워진 금자탑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역동의 시조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 오랫동안 불리어졌고, 또 인정을 받기에 이르러 오랜 세월동안 구전되어 오다가 많은 문헌에 수록되었다.

그러므로 역동의 시조 두 수는 시대적 사상적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를 밝힐 수 있는 분명한 작품으로 우리 문학사상 완성된 시조형의 최초작품이란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높게 평가된다.

3. 한시(漢詩)

〈영호루(映湖樓)를 노래함〉

〈題映湖樓〉

영남땅에 노닌지가 여러 해가 지났으나
호산땅의 경치 좋아 가장 사랑하였도다.
꽃다운 풀 나룻터는 나그네가 헤어지는 길
푸른 벼들 언덕 가에 농가 몇 채 서 있는데
바람 잔 수면에는 안개 자욱 빗겨 있고
세월이 오래되니 담장 위에 이끼가 자라났네.
비 개인 들녘에선 격양가를 부르는데
앉아 숲 위 바라보니 흰 둑단배 오고 가네.

嶺南遊蕩閱年多
最愛湖山景氣加
芳草渡頭分客路
綠楊堤畔有農家
風恬鏡面橫煙黛
歲久牆頭長土花
雨歇四郊歌擊壤
坐看林杪漲寒槎

〈조각달〉

〈殘月〉

예전에는 너의 모습 등근 거울 같았는데

昔爾圓如竟

오늘에는 어찌하여 가는 눈썹 같은가?
 달님은 그 몸을 모두 잃어 버렸고
 계수나무도 그 가지가 절반이나 없어졌네
 여기 저기 반딧불은 희미한 빛 토하는데
 하늘가 별빛 또한 다투어서 반짝이네.
 부인들은 사랑하여 일찍이 발을 걷고
 아이들은 기뻐하여 더디게 문을 닫네.
 물에 비친 달빛은 은빛이 먼저 옛은데
 모래 위에 비친 흰 그림자 희미하네.
 푸른 하늘 저 멀리에 낫을 걸어 놓았는가?
 푸른 산 높은 절벽에 빗을 달아 놓았는가?
 활시위를 당겼는가? 산새들은 두려워하고
 낚시 바늘 굽었는가? 바다 고기도 의심하네.
 밝은 달이 이지러짐 탄식을 하지 마오
 십오일이 돌아오면 병은 다시 고쳐지리!

今何細似眉
 蟾蜍全喪體
 丹桂半消枝
 蠲螢方吐(黑+炎)
 列宿競揚輝
 婦憐垂箔早
 童戲閉門遲
 印水銀先淺
 籠沙白影微
 鐙掛青天迴
 梳懸碧嵒危
 弓張山鳥畏
 鉤曲海魚疑
 莫歎天眼缺
 三五病還醫

〈강가에서〉

단풍잎에 이슬 내려 땅에 붉게 떨어지고
 석담 위에 바람 부니 푸른 하늘 흔들리네
 숲 사이 외로운 마을 멀리 보일락 말락 한데
 구름 밖에 산봉우리만 연이어 들숭 날승하네.

〈江行〉

楓葉露垂紅墜地
 石潭風動碧搖天
 林間隱映孤村迥
 雲外參差遠嵒連

4. 서간(書簡)

《어떤 사람에게 준 편지》

종일 토록 기다리다가 마침내 서로 만날 기회를 잃으니 마음이 심히 무료하였습니다. 어찌하여 행색이 이렇게도 바쁘신가, 바라보고 넋을 놓을 밖에요. 곧 밤에 물러나왔습니다. 나그네 길 가운데에 지내기가 괜찮다고 하니 다행이오! 저는 병든 몸으로 산골에 엎드려 있으니 좋은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하물며 재미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괴롭습니다.

부디 몸조심하시기를 빌며, 나머지는 다 쓰지 못하고 이만 그칩니다. 탁.

(원문) 《與或人書》

終日待之라가 竟失相奉하니 心甚無聊라. 何若是行色之忙迫가. 瞻望悠悵而
 已라. 卽惟夜謝에 旅中起居增吉이라하니 仰慰仰慰라. 僕은 病伏荒谷하니 殆

無好惊이어던 況良苦라. 餘는 只祝重하고 不宣狀하노라. 哲.

IV 역사서초록(曆史書抄錄) [역사에서 우탁 선조(禹倬先祖)와 관련된 것을 가려 봅음]

(1) 고려사열전(高麗史列傳)

우탁(禹倬)은 단산(丹山)사람인데 아버지 천규(天珪)는 향공진사(鄉貢進士)이다.

탁(倬)이 과거에 급제하여 처음에 영해(寧海)땅의 사록(司錄)으로 부임하였다. 영해군에 요망스러운 팔령(八鈴)이란 귀신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그 영괴(靈怪)함에 미혹되어 제사를 매우 성대하게 만들었다. 탁이 부임하는 즉시 그 신사(神祠)를 부수어 바다 속에 던져 버리니, 그 쓸데없는 제사가 마침내 끊어졌다.

여러 차례 승진하여 감찰규정(監察糾正)으로 있을 때에 충선왕(忠宣王)이 부왕(父王)의 후궁이었던 숙창원비(淑昌院妃)와 간음하였다. 탁이 흰옷을 입고 도끼를 가지고 거적자리를 메고 대궐에 나아가 상소하여 감히 잘못을 지적하니, 근신(近臣)이 소장(疏章)을 펴보고는 감히 읽지 못하였다. 탁이 성이 나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그대는 가까운 신하가 되어서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아 올리지 못하고 이와 같은 악한 일을 만나게 하니 그대는 그 죄를 아는가?” 하니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두려워서 떨었고, 임금도 부끄러워하는 빛이 있었다.

후에 예안현(禮安縣)에 물러나와 한가롭게 살아갈 때에 충숙왕(忠肅王)이 그 충의를 가상히 여기어 두 번이나 벼슬을 주려고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탁은 경서와 역사서에 통달하였으며 더욱 역학(易學)에 깊어 점을 치면 맞지 않음이 없었다.

정자의 《역전(易傳)》이 처음 우리나라에 건너왔을 때에 능히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탁이 문을 닫고 한 달 여 연구하여 생도(生徒)들에게 가르치니 이학(理學)이 비로소 행하여졌다.

벼슬이 성균좨주(成均祭酒)에 이르러 관직을 사양하고 물러나와 충혜왕(忠惠王) 三년(一三四二)에 졸(卒)하였다.

(2) 동국통감(東國通鑑)

충선왕이 원(元)나라에서 충렬왕의 상사(喪事)에 달려와 즉위한 후에, 빈

전(殯殿)에 제사를 올리고 드디어 김문연(金文衍)의 집에 납시어 숙창원비와 더불어 상대하여 한참 지나니 사람들이 비로소 의심하였다. 또 김문연의 집에 행차하여 간음하니 비는 문연의 매(妹)이다.

이튿날 감찰규정 우탁이 흰옷 입고 도끼를 들고 거적을 묶어 가지고, 상서(上書)하여 감히 간(諫)하니, 임금 측근의 신하들이 소장(疏章)을 펴보고 감히 읽지 못하였다. 탁(倬)이 성이 나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경(卿)은 근신이 되어 임금의 잘못을 능히 바로잡지 못하고 이와 같은 악을 만나게 하니 경은 그 죄를 아는가?” 하니 좌우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고, 임금도 부끄러워하는 빛이 있었다.

(3) 사단(史斷) [동국통감에 부기된 사평(史評)]

충숙왕이 숙창원비에게 예가 아닌 행동을 한 것은 신하로서 논설(論說)할 수 있는 것이 못되는데, 탁이 항소(抗疏)하는 말을 감히 하여 스스로 죽을 각오를 하고, 조금도 몸을 돌보는 마음이 없으니 임금도 그로 하여 얼굴빛을 변하고 좌우의 신하들도 두려워 떠니, 천년 뒤에도 그 사람을 상상하여 볼 수 있고, 그의 고충(孤忠)과 준절(峻節)은 우뚝하여 사람들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4) 동사열전(東史列傳)

공의 성은 우(禹)요, 휘(諱)는 탁(倬)이요, 자(字)는 천장(天章)이니 충청도 단양사람이다.

고려조에 벼슬하여 관직이 성균좨주(成均祭酒)와 진현관(進賢館) 직제학(直提學)에 이르렀다.

그 임금이 일찍이 실덕(失德)함이 있었는데 공이 도끼를 들고 상소하여 곧바로 지적하였고, 《주역》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능히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공이 문을 닫고 연구하여 《주역》의 도가 행하여졌고, 경상도(慶尚道) 예안현(禮安縣)에 물러나와 살면서 《주역》의 이치를 강명(講明)하여 사문(斯文)에 공이 심히 성하였다. 돌아간 후에 시호(謚號)는 문희공(文僖公)이라 하였다.

(5) 동국유사(東國遺史)

우리나라에 역(易)이 없었는데 선생이 중국에 사신으로 들어가 원나라 순제(順帝)에게 아뢰어 말하기를 “신의 나라에 역이 없습니다.” 하니, 천자가 말하기를 “그대는 역리(易理)에 통달했는가?”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비록

널리 통하는 군자라고 하더라도 어찌 역리에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역은 이학의 두뇌이니 바라옵건대 한 번 보여 주십시오” 하였다. 이에 천자가 역을 주니 선생이 옥하관(玉河關)에 나와서 불을 밝히고 하룻밤을 읽고 이튿날 돌려주니, 천자가 말하기를 “모두 읽었는가?” 하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거의 섭렵(涉獵)을 했습니다.” 했다. 순제가 배송(背誦)하게 하니 선생이 두루 외우는데 막히는 곳이 없었다. 순제가 놀라서 칭찬하여 말하기를 “아름답다! 적고 치우친 자리에 두기는 아깝구나! 주부자(朱夫子)가 다시 동방에 태어났도다”라고 하였다. 선생이 환국하여 시송(試誦)하고 조금 의심나는 곳이 있어 문을 닫고 한 달쯤 연구하여 이에 해득하고 이듬해에 중국에 보내어 본역(本易)과 서로 대조하여 보게 하니 한 자도 착오가 없었다.

동방의 명현 중에 우탁이 가장 뛰어났다. 흰옷 입고 도끼 들고 충선왕의 음특(淫慝)함을 간하였고, 고향에 물러나와 늙어가며 여러 차례 불러도 나가지 않고 문을 닫고 역을 읽어 어리석은 선비들을 계발하니 역학의 도는 처음으로 그 단서가 창도되고 확정(確精)하고 전실(專實)하게 되니 당세에 미칠 이 없었다.

(6) 패사(稗史)

선생이 여러 차례 임금께 족혼(族婚)을 금지하고, 상례를 제도화하고, 사학(四學)을 설치하고, 주(州)와 현(縣)에 학교를 세우는 일을 청하였다. 이 일을 원나라 조정에 청하니 비록 즉시 윤허(允許)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좋지 못한 풍속은 점차 변하여졌다.

선생은 역의 의(義)에 정통하고 그 차이를 깊이 추구하니 일찍이 중국의 학사(學士)와 더불어 《주역》 중에 의심나는 어려운 곳을 논의하다가 학사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우리의 역(易)이 동(東)으로 갔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학문이 실로 선생께서 천명한데 말미암으니 사인암(舍人巖)한 구역은 우리나라의 염계(濂溪)라고 할 만하다.

(7) 동국연원록(東國淵源錄)

선생의 학문은 회현(晦軒) 안유(安裕) 선생에게서 나왔다.

(8) 동현사략(東賢史略)

우탁은 경서와 사학에 통하고 더욱 역학에 깊어 문을 닫고 연구하여 생도들을 가르치니 이학이 비로소 행하여졌다.(권양촌의 《동현사략》에서 나왔으나 《고려사·열전》과 서로 같으므로 대략 이와 같이 절록하였다.

(9) 화해사전(華海師全)

목은(牧隱)이 말하기를, “역동 우 선생은 일찍이 경·사(經史)에 널리 통달하여,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집안에 있을 때엔 태연하였고 조정에 서서 일을 처리할 때엔 법도에 맞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일찍이 제가들의 혼·상·제(婚喪祭)례를 연구하여 스스로 가례(家禮)를 만들어 일체의 예법을 행하고 세속의 것을 쫓지 않았다. 문집에는 《초학개몽편(初學開蒙編)》, 《가례정요편(家禮精要篇)》 그리고 《도수편(徒酬篇)》(문도나 친구들과 문답한 요결), 《역설(易說)》 등이 있다.”라고 했다. 역론일초본(易論一草本)을 우독락(禹獨樂 : 현보(玄寶))이 역동(易東)의 계장손(系長孫)으로 지키다가 우독락(禹獨樂)이 원지(遠地)로 유배(流配)갈 때 종형제(從兄弟)에게 의탁하였다. 정도전(鄭道傳)이 원한을 품고 주인(主人)을 없애려는 화(禍)를 당(當)함에 이 또한 멸실되고 전(傳)한 바 없으니 통탄한 일이다.

(10) 전조생연보(田祖生年譜)

충목왕(忠穆王) 二년 병술(丙戌, 一三四六年)에 이제현(李齊賢), 이곡(李穀) 등과 함께 전조생이 《편년강목(編年綱目)》을 찬정(撰定)했는데 이때에 죄주 우탁을 따라 정·주의 성리학을 강명하였다.

(11) 전귀생유고(田貴生遺稿)

공민왕 十六年 정미(丁未, 一三六七年)에 포은공 정몽주와 척약재(惕若齋) 김약항(金若恒)이 태학 유학생들과 함께 상소하여 말하기를, “선생(전귀생)과 우 죄주는 모두 정·주의 성리학을 강명(講明)하였으니 실로 동방사림의 종장이 됩니다.”라고 했다.

(12) 퇴계언행록(退溪言行錄)

융경(隆慶) 원년 정묘 가을에, 조사로서 한림원(翰林院) 검토(檢討)로 있는 신안(新安) 허국(許國)과 병과(兵科) 급사중(給事中) 홍도(洪都)·위시량(魏時亮)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동방에도 공자의 심학과 기자의 주수(疇數)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그들이 물었을 때에, 선생은 고려의 우탁(禹倬)·정몽주(鄭夢周)와, 조선(朝鮮)의 김광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조광조(趙光祖)·윤상(尹祥)·이언적(李彦迪)·서경덕(徐敬德) 등을 적어 보이고, 또 글로써 답하기를, 우리 동방에 기자가 옴으로부터 구주(九疇)로서 교화를 베풀고 팔조(八條)로써 다스리어 어진 이의 교화가 스스로 신명에 응하였으니,

선비로서 심학을 알고 주교를 밝힐 수 있는 이름난 이가 반드시 세상에 있을 것인데, 사군(四郡) 이부(二府) 삼국(三國)이 서로 갈라져 다투고 서로 싸워, 문적(文籍)은 문드러지고 흩어 없어져서 도를 전하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앞 사람의 서명도 또한 얻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여 하나가 되고 고려의 오(五)백년 동안에는 세상의 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며, 문학의 풍조가 차츰 열리어 중원(中原)으로 유학하는 선비가 많아졌고, 따라서 경학이 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어지러움이 바뀌어 다스림이 되고, 중화를 사모하여 오랑캐가 변하였으니, 시서(詩書)의 덕택과 예의의 풍습은 기자의 구주(九疇)에서 끼친 풍습을 점점 회복할 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방을 현재 문현의 나라, 군자의 나라라고 일컫는 것도 다 까닭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대의 선비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마침내 언어와 문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려 말년에 이르러 정(程)·주(朱)의 글이 조금씩 동으로 들어오자 우탁과 정몽주 같은 이가 성리학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고 했다.

(13) 이퇴계(李退溪)가 조목(趙穆)에게 답한 편지

우씨의 보첩을 베껴다 보여준 것을 깊이 감사하나 다만 대현(大賢)의 후예가 이와 같이 영체(零替)함을 탄식할 뿐이오. 우선생의 묘가 지금 도곡(道谷)에 있다고 하나 믿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겠소. 마땅히 다시 자세하게 물을 뿐이오.

(14) 류희춘(柳希春)의 속몽구(續蒙求)

우탁의 자는 천장(天章)으로 단산(丹山) 사람이다. 성품이 강직하고 바르며 정통하고 총민하였다. 문과에 급제하여 주·군(州郡)의 벼슬을 역임하고, 간관(諫官)을 거쳤다. 음란한 사당을 헐고 어리석은 임금을 바로잡았으니 보통사람으로서는 능히 해내기 어려운 일이었다. 벼슬을 그만두고 복주(福州) 예안으로 돌아왔다. 여러 번 조정의 부름이 있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책읽기를 좋아하며 늙도록 게을리 하지 않았다.

(15) 기대승(奇大升)의 논사록(論思錄)

우리나라 학문은, 기자(箕子) 시대의 일은 서적이 없어 상고하기 어렵고, 삼국시대는 천성이 순수하고 아름다웠으나 학문에 공을 남긴 이가 없었다. 고려에는 비록 학문하는 이가 있었으나 다만 사장(詞章)을 위주로 하다가 여말에 우탁·정몽주에 이르러 처음으로 성리학이 있는 줄 알게 되었다.

(16) 조현(趙憲)의 상소문(上疏文)

우리나라에서 군신·부자(君臣父子)의 도리를 알게 된 것은 사서오경이 처음 들어오고 나서 설총(薛聰)·우탁이 우리말로 풀이하여 뜻을 밝게 한 때문입니다. 소학(小學)·가례(家禮)가 잇달아 나와 이색(李穡)·정몽주·우현보(禹玄寶) 등이 오랑캐의 습속을 변화시켜 중화의 문명을 밝게 드러내었고, 여말의 위기를 바로잡아 우리나라의 문명을 열어 주었습니다.

(17) 박세채(朴世采)의 동현사우록(東賢師友錄)

우리나라에 은태사(殷太師 : 기자(箕子))가 교화한 후로 천여 년이 흐르자, 성현의 학문이 어두워졌다. 여말에 이르러 역동 우선생과 포은 정선생이 유학을 창명(倡明)하여 본조(本朝 : 조선(朝鮮))에 그 계통이 이어져 유현(儒賢)들이 배출되었다. 공(公)은 능히 사서육경을 통달하였는데, 역학에 깊었다. 주문왕(朱文王)의 효사(爻辭)와 공자의 십익(十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18) 고려선거지(高麗選舉誌) [과거(科舉)에 합격(合格)한 명부]

준(準) 태학진사(太學進士) 우탁(禹倬)

왕명(王命) 사병과급제자(賜丙科及第者)

• 을과(乙科) 三인 : 진사 최함일(崔咸一)·진사 조인수(趙仁秀)·진사 윤신걸(尹莘傑)

• 병과(丙科) 七인 : 진사 서초원(徐楚援)·동정(同正) 이승경(李承庚)·동정 한수연(韓守延)·진사 김문정(金文鼎)·진사 김계래(金桂來)·재생(齋生) 박빈(朴贊)·진사 우탁(禹倬)

• 동진사(同進士) 二十一인 : 진사 정천조(鄭天祚)·재생 류영(柳寧)·진사 윤평(尹評)·재생 정응교(鄭應喬)·별장(別將) 인승광(印承光)·동정 김승용(金承用)·재생 정진(鄭陣)·재생 심(沈)·재생 심(沈)·동정 최가(崔迦)·재생 신동검(辛夢劍)·진사 김백룡(金伯龍)·동정 김숙화(金淑奩)·진사 김천정(金千正)·진사 이진(李珍)·동정 최사립(崔斯立)·진사 이규(李樞)·진사 김승인(金承印)·별장(別將) 하정(河停)·재생 권혁(權奕)·재생 박윤화(朴允和)

• 은사(恩賜) 二명 : 진사 최(崔)·진사 류백(柳伯)

[이상(以上) 출전(出典) : 역동우탁(易東禹倬)의 사상(思想)과 문학(文學)]

4. 적성군(赤城君, 九세) 휘(諱)는 길생(吉生)

[작(爵)은 삼중대광(三重大匡) 적성부원군(赤城府院君) 관(官)은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

I 생애(生涯)

공(公)의 휘는 길생(吉生)이고 단양인이시다. 고려 중엽부터 벼슬을 많이 하여 세상을 빛내셨다. 증조(曾祖)의 휘는 중대(仲大)이고 관직이 문하시중(門下侍中)이었고, 조(祖)의 휘는 천규(天珪)인데 관직이 남성전서(南省典書)이었으며, 고(考)의 휘는 탁(倬)인데 관직이 성균좨주(成均祭酒)이고 시호가 문희공(文僖公)인데 세상에서 역동(易東)선생이라고 칭하였다. 공(公)은 충숙 경오년에 등제하여 화요한 직책을 역임하셨다. 공민왕 신축년에 이르러 안우(安祐) 등과 더불어 홍두적을 격파하고 경성을 수복하였고, 임인년에는 그 아들 충정공과 함께 왕을 호종하여 청주에 이르러 공북루응제시(拱北樓應製詩)를 지어 화답하여 올리고 계묘년에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로 단성익대보조공(端誠翊戴補祚功) 二등에 기록되셨고, 삼중대광승록대부(三重大匡崇祿大夫)에 올랐으며 적성군에 봉해졌고 문형(文衡)에 경하여 오르셨다.

공(公)은 훈업(勳業)에 뜻을 두지 않고 가학(家學)을 이어서 서술하니 연원이 매우 정확하셨다. 그러므로 포은(圃隱) 정선생(鄭先生)이 일찍 그를 스승으로 삼았다. 시문이 웅건하여 이가정(李稼亭 : 곡(穀)), 이익재(李益齋 : 齊賢)와 더불어 당세에 이름을 나란히 하였으나 유문(遺文)이 산일(散佚)되어, 다만 ‘화공북루시(和拱北樓詩)’ 한 수가 《여지기(輿地記)》에 실려 있고 〈송홍진사시(送洪進士詩)〉 한 수가 《동문선(東文選)》에 들어있다.

공(公)의 생존연도와 묘소는 세대가 멀어 징험할 수 없다. 부인 경주김씨(慶州金氏)는 전교령(典校令)의 딸이고 재신(宰臣) 연(戩)의 손이며 삼사부사(三司副使) 영백(英伯)의 증손이시다. 一남인 현보(玄寶)는 관직이 시중(侍中)에 이르렀고 단양백(丹陽伯)에 봉하여졌으며 충정(忠靖)이라고 시호를 받으셨다. 호는 양호당인데 고려의 운세가 끝나자 전야(田野)에 은둔하고 새 왕조에 복종하지 않으셨다. 포은(圃隱), 목은(牧隱)과 더불어 삼인(三仁)이라 병칭(竝稱)되었다.

《국조보감(國朝寶鑑)》에 “고려 시중(侍中) 우현보는 죄주 우탁(禹倬)의 손으로 그 학문을 가정에서 배웠다”고 하였다. 안정공(安靖公)은 즉 공의 제 三손이다. 홍무(洪武) 三十五년 임오식장적(壬午式帳籍)에 이르기를 부(父)

충정공(忠靖公), 조(祖) 적성군(赤城君), 증조(曾祖) 문희공(文僖公)이라고 하였다. 인천(仁川) 채모(蔡模)는 적성군의 十대손 순필(舜弼)의 사위인데, 순필이 후사(後嗣)가 없어 가장집물(家藏什物)을 채씨 사위에게 전급(傳給)해 주었다. 그러므로 그 전래 보첩이 역시 채씨 가장(家藏)에 있었는데, 적성군을 바로 문희공 밑에 이은 것으로 하였다. 탁영(濯纓) 김(金)선생의 연보에 이르기를 “우씨(禹氏)와 결혼하였는데, 단양(丹陽) 사인암(舍人巖) 병조참판(兵曹參判) 극관(克寬)의 딸인데, 역동선생(易東先生)의 六대손 극관은 바로 적성군의 현손이다.”고 하였다. 화담 서(徐)선생의 문집 서문에 이르기를 “역동 선생이 희경정맥(羲經正脈)을 얻어 일가(一家)의 법도를 대성하였다. 그 아들 길생(吉生)이 배워서 정문충공(鄭文忠公) 선생에게 전하였다.”고 하였다.

II 업적(業績)

고려 충숙왕 十七年(一三三〇년) 등과(登科)하였다.

공민왕 十一年(一三六二년) 안우(安祐)와 함께 홍두적(紅頭賊)을 격파하고 개성을 수복하였다. 十二년 계묘(癸卯)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로 단성익대보조공(端誠翊戴補祚功) 二등 중대광보국승록대부(重大匡輔國崇祿大夫) 적성군(赤城君)에 기록되고 문형(文衡)을 담당하였다.

고려 공민왕 十년 신축, 홍두적 반성(潘誠)·사유관선생(沙劉關先生)·주원수(朱元帥) 등이 삑주(朔州)를 노략질하고 절령책(岳嶺柵)을 공파하니 우리 군사가 크게 궤멸당하니 왕(王)이 남행하였다. 왕(王)이 음죽(陰竹)에 행차하고 十二월 왕(王)이 복주(福州)에 이르렀다. 홍두적의 여당이 압록강을 도망쳐 넘어갔다. 홍두적이 드디어 평정됨에 따라 왕(王)이 상주를 출발하여 청주에 이르러 공북루(拱北樓)에 올라가 문신(文臣)에게 판운(板韻)에 화답(和答)하는 시를 짓도록 명하였다. 공(公)과 양호당 및 그때의 명현들이 화답하여 시를 지었다. 다음 해 계묘 十二월 청주를 출발하여 송경(松京)에 돌아오셨다.

수복경성공(收復京城功)으로 찬성사상의(贊成事商議) 황裳(黃裳), 밀직사(密直事) 우제(禹磣)와 이성계(李成桂)가 一등공신이고, 송경(宋卿),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 우길생(禹吉生)이 二등공신이 되셨다. 벽상(壁上)에 도형(圖形)을 그리고 부·모·처에게 三등을 올려 관작을 봉하고 아들 一인에게 七품관에 임명하고, 아들이 없으면 생질, 사위 一인을 八품에 임명하며, 자제들은 음직으로 서용하고, 토지 一백 결과 노비 十구를 내려주었다. 二등은 부·모·처에게 三등을 올려 관작을 봉하고 아들 一인에게 七품관에 임명하고, 아

들이 없으면 생질, 사위 一인을 八품에 임명하며, 자제들은 음직으로 서용하고, 토지 一백 결과 노비 十구를 내려주었다. 二등은 부·모·처에게 三등을 올려 관작을 봉하고 아들 一인에게 七품관에 임명하고, 아들이 없으면 생질, 사위 一인을 八품에 임명하며, 구사(驅史) 三인, 직배파령(直拜把領) 五인을 주었다. 초입사(初入仕)를 허용하여 자손들을 음직으로 서용하고, 토지 五十 결과 노비 五인을 내려주었다.(《고려사》에 나옴)

공(公)이 가업(家業)을 이어서 도학이 정명하여 정포은이 일찍이 그를 승으로 하였다.(《패사》에 나옴)

역동 선생이 원에 들어가 주역(周易)의 대소연의주설(大小衍義註說)을 외워서 돌아왔다. 그러므로 역동선생이라고 칭하였다. 늙어서 아들이 없으므로 칭(偁)의 아들 길생(吉生)으로 뒤를 이었고 현보(玄寶)를 낳았다. 부인이 죽으니 다시 경외에서 취처하였는데, 직언(直言)으로 문외에 쫓겨나니 인하여 부인 본제(本第)의 옆에 집을 짓고 살았다.(《화해사전(華海師全)》에 나옴)

III 시가(詩歌)

○ 청주 공북루에서 왕명에 응하여 지은 시(清州拱北樓應製詩)

공민왕 임인년(十一年, 一三六二)에 공이 흥두적을 격파하고 왕을 호종하여 청주에 이르러 화답시(和答詩)를 바쳤다.

扈從登樓日	호종하여 누대에 오르는 날
淒涼雨霽初	비는 개이고 쓸쓸하구나
君王來送表	군왕(君王)은 표문(表文)을 지어 보내고
寇賊聘降書	오랑캐는 항복 문서를 바치네
景晏山如畫	경색(景色) 밝으니 산(山)은 그림과 같고
秋深水似虛	가을이 깊으니 물 맑다네
南州雖信美	남주(南州)는 비록 믿음직하고 아름다우나
悵望轉傷予	창망히 도리어 나를 슬프게 하네
拱北名雖舊	공북이 비록 이름은 옛 것이나
吾王敬命初	우리 임금이 경명(敬命)하는 처음이라네
氛埃今已掃	전란의 먼지는 지금 이미 쓸었으나
雲物正當書	구름과 문물을 마땅히 써야겠네
辰極瞻依遠	임금은 바라보니 멀지만
川原向背虛	시내와 들판은 등을 지고 비어 있네
斯民知所感	이 백성은 느낀 바 있으니

責在一人予

책임이 한 사람 나에게 있네

○진사 홍민구를 보내며(送洪進士敏求)

崔公當日秉斯文

최공은 당대에 글을 담당하였고

捷第連科起一門

연과(連科)에 합격하여 일문을 일으켰네

十二徒名傳後世

십이도(十二徒)의 이름은 후세에 전하고

半千年慶洽諸孫

반천년의 경사가 후손에 적시네

報劉日短宜先孝

보류(報劉)는 날이 짧으니 의당 효를 먼저 했고

佐漢時來可盡言

좌한(佐漢)은 때때로 와 말을 다하네

吟(缺)白華勤敬養

백화(白華)를 읊으며 부지런히 경양(敬養)하니

何妨獻策報皇元

책략(策略)을 바쳐 원나라 보답함이 어찌 잘못이리

요

5. 충정공(忠靖公, 十세) 휘(諱)는 현보(玄寶)

적성군(赤城君) 길생(吉生)의 자(子). 서기 一三三三년~一四〇〇년)

자(字)는 원공(原功)·관(官)은 문하시중(門下侍中)·호(號)는 양호당(養浩堂)
독락당(獨樂堂)·봉(封) 단양부원군(丹陽府院君)]

충정공 참조

6. 안정공(安靖公, 十一世 : 忠靖公의 第三子)

諱는 洪康 [官은 吏曹叅判 江原道觀察使 開城留後 刑曹判書를歷任. 一三五七年生 一四二三年卒]

안정공 참조

7. 증사과공(贈司果公)

휘(諱)는 대복(大復) 관(官)은 사과(司果) [오위(五衛)에 속(屬)한 정육
품(正六品)의 군직(軍職)]

공(公)의 덕기(德器)가 천성(天成)하고 효행(孝行)이 초범(超凡)하였다.
연(年) 二十二에 엄친(嚴親)이 돌아가시니 시묘(侍墓) 三年 하시고 예의(禮
義)를 바르게 하시었고 그 후(後) 자친(慈親)이 병(病)에 고생(苦生)하심에
손가락을 끊어 주혈(注血)하여 드리니 병(病)이 나으셨다. 평소(平素)에 기
강(紀綱)이 바르시고 촌음(寸陰)을 아껴 공부(工夫)하시니 그 문명(文名)이
널리 세상(世上)에 알려졌고 특히 예학(禮學)에 조예가 깊으셨다. 명종대비

(明宗大妃)가 승하하시자 상복(喪服)을 입으시고 그 명성(名聲)이 적(籍)에 오르셨다. 당시(當時)의 선비와 교유(交遊)하심에 공명(功名)에 뜻이 없으시어 사양하며 관(官)에 나아가지 않으셨다. 청음 김선생(淸陰金先生)이 친(撰)한 비문(碑文)에 ‘딴 성씨(姓氏)와 서로 화락(和樂)하니 반백년(半百年)을 같이 가도다. 아들 있고 손자 있으니 수(壽)는 70이라. 청백(淸白)과 고행(苦行)을 스스로 지키니 세인(世人)이 그 어지심을 칭송하는구나 끝내 영귀(榮貴)를 버리니 일생(一生)이 편안하여라.’

8. 우송당(友松堂)

휘(諱)는 윤하(胤夏) 자(字)는 여흡(汝欽, 諱 湛의 長子) 관(官)은 절충장군(折衝將軍)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

천성(天性)이 정직엄숙(正直嚴肅)하시며 문학(文學)이 월등(越等)하심으로 세인(世人)의 존경(尊敬)을 받으셨고 문집(文集)을 후세(後世)에 전(傳)하였다. 일찍이 향리(鄉里)에서 원근종친(遠近宗親)을 규합(糾合)하여 우리나라 초유(初有)의 종계(宗稽)를 창립(創立)하시어 솔선(率先) 용기(容器)를 손수 드시고 호별방문(戶別訪問) 곡물(穀物)을 수집(蒐集)하여 위선사업(爲先事業)에 진력(盡力)하시어 그것을 기금(基金)으로 삼아 점차(漸次) 증식(增殖)한 결과(結果) 양호당 선조(養浩堂先祖)를 위시(爲始)한 안정공(安靖公) 이하(以下) 제위조상(諸位祖上)님에 이르기까지 제향봉사(祭享奉祀) 함에 제반절차(諸般節次)와 만반시설(萬般施設)에 부족(不足)이 없었고 묘수호(墳墓守護)는 물론(勿論) 양호당(養浩堂) 거처(居處)이던 독락당(獨樂堂)을 중수(重修)하시고 묘사개축(墓舍改築)까지도 전념(專念)하셨을 뿐 아니라 후세(後世)를 위(爲)한 교육사업(教育事業)에도 막대(莫大)한 비용(費用)을 투입(投入)하셨다. 그 후(後) 후손(後孫)들이 8·15 해방(解放)까지 현대조류(現代潮流)에 따라 학교(學校)를 건립(建立)하여 종중재산(宗中財產)으로 그 비용(費用)을 조달(調達)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송당선조(松堂先祖)의 치밀(緻密)하고 원대(遠大)한 계획(計劃)으로 이루어졌다고 아니할 수 없다. 국내(國內) 각처(各處)의 대성거족(大姓巨族)이 다투어 위선사업(爲先事業)으로 종계(宗稷)를 조직(組織)하여 수백년(數百年)을 거쳐 금일(今日)에 이르기까지 유지(維持)함이 모두 송당선조(松堂先祖)를 본 딴 것이라 전(傳)하여 온다.

9. 군자감공(軍資監公)

휘(諱)는 응장(應章) 관(官)은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중추부사(同中樞府

事) 군자감정(軍資監正) [군수품(軍需品)의 저장(貯藏), 출납(出納)을 관장하는 직(職)]

공(公)은 성품(性品)이 활달공명(闊達公明)하시고 자손(子孫)들에게 인자(仁慈)하셨으니 임진란(壬辰亂)을 당(當)하사 형제(兄弟)三人과 함께 순안(順安)에서 양덕(陽德) 산골로 피란(避難)하시어 그 땅에서 가세(家勢)와 후손(後孫)이 더 번창(繁昌)하게 되었다. 공(公)은 이재(理財)에도 유능(有能)하시어 가산(家產)을 증식(增殖)하시고 위선사업(爲先事業)에 열중(熱中)하시는 한편 후손(後孫)의 교육사업(教育事業)에도 많은 수자(垂資)가 있었음은 물론(勿論) 향교(鄉校)의 전교(典校)를 역임(歷任)하여 원근(遠近) 사림(士林)의 흠토(欽慕)하는바 컸다.

10. 습독공(習讀公)

휘(諱)는 계근(繼勤) 자(字)는 성공(成功) 관(官)은 어모장군(禦侮將軍) 훈련원습독관(訓練院習讀官)

성품(性品)이 본래 청검(清儉)하시고 엄(嚴)하고 곤으셨다. 무과(武科)에 합격(合格)하셨으나 벼슬에 나아가기를 싫어하시고 산림(山林)에 묻히시어 가훈(家訓)을 잊고 자손(子孫)을 잘 이끄셨다. 정씨화(鄭氏禍)를 피(避)하시어 송도(松都)에서 괴산사담(槐山沙潭)으로 이거(移居)하시어 입향조(入鄉祖)가 되셨다.

11. 졸은공(拙隱公)

휘(諱)는 서부(瑞敷) 관(官)은 도사(都事)

행록(行錄)에 말하기를 공(公)은 처음에 문학(文學)을 공부(工夫)하고 역리(易理)에 밝으셨다. 일찍이 점필재(佔畢齋) 김선생(金先生)의 문하(門下)에 유학(遊學)하시고 무오사화시(戊午史禍時)에 장차 사화(史禍)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豫測)하여 문을 닫고 독서(讀書)에만 전념(專念)하시고 타인(他人)과 교제(交際)를 끊으심으로 화(禍)를 면(免)하시니 그 기(機)를 보심이 이와 같으니라.

12. 비계공(秘溪公)

휘(諱)는 순민(舜民) 생원(生員)

널리 경사(經史)를 섭렵하시고 성리학(性理學)을 연구(研究)하시어 후생(後生)들을 교도(教導)하시니 그 문장(文章)이 경향(京鄉)에 폐지시더라. 여

러 고을의 선비들이 향사(鄉祀) 올릴 것을 의론하더라.

13. 사담공(沙潭公)

휘(諱)는 정침(廷琛) 문과(文科)에 급제(及第) 관(官)은 현감(縣監) 군수(郡守) 일찍이 문과(文科)에 올라 영춘(永春) 부여(扶餘) 남포(藍浦) 해미(海美) 군수(郡守)를 역임(歷任)하여 정사(政事)를 청백(清白)하고 간명(簡明)하게 처리(處理)하셨다. 임진란(壬辰亂)에는 의병장(義兵將)이 되어 많은 적병(賊兵)을 토벌하시니 몇 차례 훈상(勳賞)을 받으셨다. 만년(晚年)에 은퇴하시어 경학(經學)에 심취(心醉)하시고 낙육재(樂育齋) 풍영루(風詠樓)를 지으셨다. 공(公)의 子 한천공(寒泉公, 諱는 방(昉) 생원(生員))의 문장(文章)이 세상(世上)에 널리 알려지고 효종조(孝宗朝)에 상서(上書)를 올려 극간(極諫)하여 잠시 官에서 물러나니 그 공(功)으로 학교사림(學校士林)에서 향사(鄉祀)의 논의(論議)가 있었다.

14. 중추공(中樞公)

휘(諱)는 극준(克俊) 관(官)은 중추(中樞) [조선조(朝鮮朝)의 중앙관청(中央官廳)의 하나로 숙위군기(宿衛軍機) 등을 맡아보았다. 한편 임직(任職)이 없는 관원(官員)을 우대(優待)하기 위하여 일정(一定)한 사무(事務) 없이 명예(名譽)만으로 관직(官職)을 준 일도 있다.]

충(忠)에 더함이 없고 의(義)에 부족(不足)함이 없이 나라가 어지러움에 분연히 일어서고 성심(誠心)으로 충효(忠孝)를 다하시니 병기(炳幾) 익명영사공일등(翊命寧社功一等)이시다. 그 후(後)로 사관(仕官)을 구(求)하지 않고 스스로 서민(庶民)이라 칭(稱)하여 당신(當身)의 분수(分守)만을 조용히 지키시었다.

15. 초로공(草廬公)

휘(諱)는 몽뢰(夢齋)

재질(才質)이 뛰어나시고 경학(經學)에 뜻을 두시어 수암(遂菴) 권상하 선생(權尚夏先生) 문하(門下)에서 수업(受業)하셨다. 상례(喪禮)와 제례(祭禮)를 자작가범(自作家範)하시고 산림(山林)에 숨어사시며 후생(後生)을 교도(教導)하셨다.

16. 육송한인공(六松閑人公)

휘(諱)는 형도(亨道) 자(字)는 중보(重甫) 호(號)는 육송한인(六松閑人) 문장(文章)에 능(能)하시어 두 번이나 향학장(鄉學長)을 지내셨다. 무신(戊申) 적변(賊變)에 몸 바쳐 창의(倡義)하고 의병장(義兵將)으로 추대되셨다. 적을 많이 죽이고 사로잡았으나 공(功)을 나타내지 않고 늙게 천석(泉石)을 즐기셨다. 소운(少雲) 한성리(韓星履)가 비명(碑銘)을 쓰기를 “선생(先生)님은 오로지 백세(百世)에 썩지 않으시고 공(功)을 나타내거나 자랑하시지 않고 지난 일을 탓하지도 않고 마감을 꼼꼼히 하셨다. 육송(六松)(절개)은 서로 의지하고 오류(五柳)(문장)와 함께 있네. 그 모습 바람에 나부끼어 영원(永遠)하리라”라 하였다.

17. 역운공(易雲公)

휘(諱)는 현정(顯鼎) 관(官)은 승훈랑(承訓郎) 공(公)이 여러 해 서울에 머무실 제 을사조약(乙巳條約)으로 국변(國變)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와 세상(世上)과의 문유(文流)를 끊으셨으며 유졸당(遊拙堂) 감역(監役) 석규씨(錫圭氏) 사종숙(四從叔) 농은(農隱) 석동씨(錫東氏), 주사(主事) 현무씨(顯武氏)와 연원화숙(淵源和塾)이란 학교(學校)를 세우니 학도(學徒)들이 수백명(數百名)에 이르렀다. 우애(友愛)와 효행(孝行)이 지극하시고 그 말씀에 항상 사람들이 감복(感服)하지 않음이 없었다. 정사년(丁巳年)에 족보(族譜)를 수보(修譜)할 때 천리(千里)길을 마다않고 족인(族人)을 설득(說得)하여 대동보(大同譜)를 만드셨다. 자모(慈母)가 돌아가심에 초려(草廬)를 짓고 거상(居喪) 三年하고 호랑이가 찾아와 보호(保護)하였다 한다.

정포은(鄭圃隱)과 조정암(趙靜庵)의 처신(處身)을 본받아 무너지는 풍속(風俗)을 지키려 힘쓰셨다.

18. 통정공(通政公)

휘(諱)는 성기(聲暨) 관(官)은 참봉(參奉) 가세청빈(家勢清貧)함으로 근검치재(勤儉致財)하여 자모(慈母)를 효양(孝養)하되 항상 그 뜻에 승순(承順)하여 지성으로 공양(供養)하셨다. 일생(一生)을 검박(儉朴)으로 종시(終始)하였으며 처신(處身)이 신중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경양(敬仰)하고 또한 모범(模範)으로 삼았다.

19. 전면장(前面長) 현빈공(顯斌公)

무신란(戊申亂)에 면리(面里)에 난처한 일이 생겼을 때 책임(責任)을 지고 자기(自己)의 생명(生命)의 위험(危險)을 무릅쓰고 나아가 일족(一族)을 평안(平安)하게 하였다.

전면민(全面民)도 공(公)을 믿어 마지않았으니 이와 같은 분이 어디 계시랴! 을유(乙酉, 一九〇九年)七月에 군민(郡民)이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를 건립(建立)하였다.

20. 학사공(學士公)

휘(諱)는 완(浣)

공(公)의 성품(性品)이 효우(孝友)하고 친족간(親族間)에 돈독(敦篤)하시며 엄격공정(嚴格公正)하셨다. 양호당 선조(養浩堂先祖)의 유적(遺蹟)이 각 가(各家)에 산재(散在)하여 있는 것을 성력(誠力)을 다하여 일일이 수집정리(蒐集整理)하고 실기(實記) 상하권(上下卷)을 간출(刊出) 세상(世上)에 반포(頒布)하셨다.

21. 수와공(睡窩公)

휘(諱)는 명천(命天)

공(公)의 자성(資性)이 순정(純正)하여 행동(行動)과 신의(信義)가 고결(高潔)하시고 문장(文章)이 뛰어나 경의(經義)를 토론(討論)하시며 안빈낙도(安貧樂道)하셨다. 후진(後進)을 선도하여 받들어 주니 원근사림(遠近士林)이 모두 도학군자(道學君子)라 칭(稱)하였다. 족숙(族叔) 완(浣)과 함께 상의(相議)하여 양호당실기(養浩堂實記) 이권(二卷)을 간출(刊出)하였다. 성 담송 선생(性潭宋先生)에게 사사(師事)하셨다.

22. 방원제(方圓齊)

휘(諱)는 정동(鼎東) 관(官)은 가선(嘉善)

금계 이근원(錦溪李根元)이 찬(撰)한 행록(行錄)에 이르기에 공(公)께서 효행(孝行)이 특이(特異)하고 성품(性品)이 돈후(敦厚)하시었다. 선조(先祖)를 극진히 봉사(奉祀)하시고 타인(他人)과 말함에 선친(先親)에 관한 말을 들으면 흠모(欽慕)하는 마음을 금(禁)치못하고 수신(修身)토록 효성(孝誠)이 지극(至極)하시었다. 조령보(鳥嶺譜)를 주관(主管)하신바 있고 이재(理財)에 능(能)하시어 가세(家勢)를 부유(富裕)하게 하시었다.

23. 만취당(晚翠堂)

휘(諱)는 효동(孝東) 관(官)은 감찰(監察) [사헌부(司憲府)의 정육품(正六品)의 관직(官職)]

행록(行錄)에 이르기를 공(公)은 천성(天性)이 침착(沈着)하여 어릴 때부터 효심(孝心)이 순독(純篤)하시었다. 조모(祖母)가 업고 뜰에 내려오다 실족(失足)하여 우족(右足)을 다치시니 말은 못 할지언정 기색(氣色)이 달라지셨으며 그 후(後)로는 다시 등에 업어 달라 하지는 않으시다가 성장(成長)함에 따라 효도(孝道)의 예절(禮節)이 옛 어른에 못지않았다. 가친(家親)의 병환중(病患中)에 당신(當身)이 아프기를 주야(晝夜)로 기도하고 분(糞)을 맛보는 일도 있었다. 자모(慈母)가 수개월(數個月)을 앓으시니 단지(斷指) 주혈(注血)하여 드리어 병이 나으셨다. 사림(士林)이 모두 그 효(孝)를 칭찬하니 조정(朝庭)에서는 정려(旌閭)를 특명(特命)하고 통훈대부(通訓大夫)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증직(贈職)하였다.

24. 정암공(貞菴公)

휘(諱)는 기동(起東) 관(官)은 승지(承旨)

공(公)은 어려서부터 범상(凡常)하지 않으셨으니 귀인(貴人)이라 신령(神靈)이 반드시 출호(出護)하였다 한다. 관(官)이 위원군수(渭原郡守)가 되어 사풍(土風)을 진작(振作)하시고 민속(民俗)을 순량(淳良)하시었다. 강계(江界) 회인(懷仁) 현감(縣監)으로 계실 때는 명판(名判)으로 옥사(獄事)를 다스리고 동학란(東學亂)이 일어나도 위원일대(渭原一帶)는 민(民)이 모두 안도(安堵)하였다. 음죽(陰竹) 등(等) 여러 고을을 다스리실 때 선정(善政)으로 사민(士民)이 유임(留任)을 간청한바 있었고 사임(辭任)하여 전리(田里)에 돌아오시자 정암(貞菴)이라 자호(自號)하시고 유유자적(悠悠自適)하셨다. 족인(族人) 석원(錫元)과 함께 정사(丁巳)에 회인대보(懷仁大譜)를 발간(發刊)하시어 팔성(八城)의 종족(宗族)에게 분포(分布)하시었다.

25. 농은공(農隱公)

휘(諱)는 석동(錫東)

공(公)의 성품(性品)이 인후(仁厚) 화평(和平)하시어 제가(齊家)하심에 효우목인(孝友睦嫗)하시니 항상(恒常) 집안이 화기애애하였다. 금계 이근원 선생(錦溪李根元先生)이 농은(農隱)이라 계호(揭號)하여 주시고 족인(族人) 석규(錫圭) 현정씨(顯鼎氏)와 상의출연(相議出捐)하여 병오(丙午, 一九〇六)

괴산군(槐山郡) 사담리(沙潭里)에 중립화숙(中立和塾)을 설립(設立) 자손(子孫)들을 교화(教化)할 뿐 아니라 원근(遠近)의 다사(多士)가 몰려 수백 명(數百名)을 이루니 학당(學堂)이 좁아 수용(收容)하지 못할 정도(程度)였고 나아가 많은 인재(人材)를 양성(養成)하시었다. 사림(士林)에서 인후군자(仁厚君子)가 공(公)이 아니고 그 누구냐고 칭송하였다.

26. 인산공(仁山公)

휘(諱)는 세문(世文)

학문(學問)에 뜻을 두어 경사(經史)를 섭렵하시고 산림(山林)에 묻혀 살으셨다. 효행(孝行)이 남달라 향간(鄉間)에서 누차 천거하였으니 세인(世人)이 인산부자(仁山夫子)라 칭(稱)하였다.

27. 남파공(南坡公)

휘(諱)는 정규(禎圭) 호(號)는 남파(南坡) 관(官)은 호조참판(戶曹參判) 공(公)은 천성(天性)이 순인(淳仁)하시고 재예(才藝)가 초월(超越)하시니 문학(文學)이 세상(世上)에 널리 알려져 뜻 선비들이 스승으로 모셨다. 숙종을유(肅宗乙酉, 一七〇五年)에 문과(文科)에 장원(壯元)하시고 예조좌랑(禮曹佐郎)을 거쳐 만항현령(萬項縣令) 광양현령(光陽縣令) 좌통례(左通禮) 돈녕도정(敦寧都正, 正三品)을 거쳐 한성좌윤(漢城左尹)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이르셨다. 거가(居家)에 효공(孝恭)하시고 국가(國家)를 위(爲)해서 만언(萬言)의 상소(上疏)를 올려 왕(王)이 가납(嘉納)하시어 국승(國乘)에 기재(記載)되었다.

28. 증승지공(贈承旨公)

휘(諱)는 순걸(舜傑) 자(字)는 영운(英云)

공(公)은 성품(性品)이 온화(溫和) 웅건(雄健)하시어 매사(每事)에 대범(大凡)하시었다. 사친(事親)에 효도(孝道)하시고 자손(子孫)들에게 인자(仁慈)하셨으며 노복(奴僕)에게도 충정(衷情)으로 살피시었다. 문장(文章)에도 뛰어나시어 나라에서 좌승지(左承旨)를 증직(贈職)하였으니 사림(士林)의 송배(崇拜)하는바 되셨고 종사(宗事)를 위(爲)하여 개성(開城) 만수산(萬壽山) 북록(北麓)에 종산(宗山)을 수만평(數萬坪) 마련하시어 일가(一家)의 장지(葬地)로 설정(設定)하시니 그곳을 세인(世人)이 우산동(禹山洞)이라 일컬었다.

29. 학사공(學士公)

휘(諱)는 정길(禎吉)

집의(執義) 민치량(閔致亮)이 찬(撰)한 효행비(孝行碑)에 공(公)은 천성(天性)이 독효(篤孝)하사 부모(父母)님 섬기는 예절(禮節)이 한결같이 고인(古人)의 예(禮)를 본받으셨다. 부모(父母)님 병환(病患)에는 띠를 풀지 않고 밤을 지새우며 매일(毎日) 청수(清水)에 목욕하고 쾌유를 빌으셨다. 부모(父母)가 세상(世上)을 떠나신 후(後) 심(甚)히 애통(哀痛)하여 사경(死境)에 놓이자 행인(行人)도 감동(感動)하여 눈물을 흘렸다. 당시(當時) 마을이 불안(不安)하여 산(山)에다 빈소(殯所)를 모시니 한밤中에 대호(大虎)의 후성(吼聲)이 천지(天地)를 진동(震動)하더니 여우 한 마리가 빈소(殯所)가에 물려 죽어 있었다. 장례일(葬禮日)에 범이 산돼지를 쫓아 잡아주니 제수(祭需)로 쓰고 대호(大虎)가 영역(塋域)을 보호(保護)하는 듯 하였고 장례(葬禮)가 끝나자 멀리 사라져갔다. 유림(儒林)이 여러 차례 연명정장(聯名呈狀)하니 효행비(孝行碑)를 경남(慶南) 산청군(山清郡) 금서면(今西面) 화계(花溪)에 입비(立碑)하고 산청군지(山清郡誌)에 기재(記載)하였다.

30. 농산공(農山公)

휘(諱)는 문수(文洙)

하동(河東) 정승현(鄭承鉉)이 찬(撰)한 효열비(孝烈碑)에 공(公)이 유시(幼時)에 서당(書堂)에 입학(入學)했는데 가세(家勢)가 곤궁(困窮)하여 학업(學業)을 중단(中斷)하여 부모(父母)를 봉양(奉養)하고 지체(志體)를 화열(和悅)에 하시니 인칭효(人稱孝)라. 그 후(後) 함양(咸陽)에 우거(寓居)하시다가 학질을 앓아 백약(百藥)이 무효(無効)하더니 꿈에 한 노인(老人)이 부인(夫人)에게 말하기를 약(藥)이 고장(古庄)에 있으니 속(速)히 구(求)하라하여 주야(晝夜)로 분주(奔走)하여 마침내 동리(洞里)사람들이 포호(捕虎)하여 호육(虎肉)을 얻어 들이니 十日안에 효험이 있어 세인(世人)이 감탄(感嘆)하였다. 효열비(孝烈碑)가 경남(慶南) 고성군(固城郡) 영오면(永吾面) 생곡리(生谷里)에 있다.

31. 경당공(敬堂公)

휘(諱)는 정규(政圭)

공(公)은 성품이 단아정직하고 겸양관인하시고 친척에게 화목하고 타인

(他人)과는 예(禮)로써 대하였다. 문장(文章)이 뛰어나고 도심(道心)은 공맹(孔孟)에서 찾았으니 공사(公事)에는 반드시 바르니 향리(鄉里)가 그 덕(德)을 칭송하고 언행(言行)이 관후하니 사림(士林)에서 흡모하였다. 공(公)이 돌아가시니 모두 현인(賢人)이 가셨다고 슬퍼하였다. 一九八八年 향민(鄉民)이 입비추진위원회(立碑推進委員會)를 구성하고 전 내무부장관(前內務部長官) 김종호(金宗鎬)가 찬(撰)하고 정선(旌善) 김인식(金仁植)이 서(書)하여 사담리(沙潭里) 입구(入口) 단양우씨유지비(丹陽禹氏遺地碑) 원내(園內)에 경당(敬堂) 우정규 선생(禹政圭先生) 송덕비(頌德碑)를 건립(建立)하였다.

32. 정현공(靜軒公)

휘(諱)는 淳(淳) 호(號)는 이오당(二梧堂)

공(公)은 일찍이 학문(學問)과 서예(書藝)에 능(能)하여 성균관전학(成均館典學)의 직함(職啓)을 받은바 있고 충효(忠孝)의 고문(高門)으로 가도(家道)를 닦아 자손훈육(子孫訓育)은 물론(勿論) 이웃 계도(啓導)에도 솔선수범(率先垂範)하는 한편 조비(祖妣)와 선고비(先考妣) 양위(兩位)의 상(喪)을 당(當)하여서는 오년여(五年餘)의 여막(廬幕)살이로 건경(巾經)을 불해(不解)하고 일의예제(一依禮制)하여 지극(至極)한 효성(孝誠)을 다하였으며 추원록(追遠錄)을 편성(編成)하여 후손(後孫)들의 숭조정신(崇祖精神)을 함양(涵養)케 하였고 매삭망(每朔望)에 필성친묘(必省親墓)하였으며 종사(宗事)에도 선도(先導)의 역(役)을 다 하였다. 공(公)의 유업(遺業)은 면사무소(面事務所) 이전신축(移轉新築)과 보광국민학교(寶光國民學校) 신축(新築)에 그 활약(活躍)이 심대(甚大)하였으며 학교부지(學校敷地) 희사(喜捨)와 그 후(後) 학급(學級) 증설(增設) 실습지(實習地) 조성(造成) 등(等) 학교 발전(學校發展)에 진력(盡力)하였고 이웃 도안국민학교(道安國民學校) 신축시(新築時)에도 부지(敷地)를 희사(喜捨)한바 있으며 보광산(寶光山) 조림사업(造林事業)에도 각별(恪別)한 관심(關心)을 기울여 애림사업(愛林事業)을 확장(擴張)하는 한편 당국(當局)에 교섭(交涉)하여 사방공사(砂防工事)를 실시(實施)케 하고 모범적(模範的)인 애림운영(愛林運營)으로 그 불모(不毛)의 산(山)을 전국제일(全國第一)의 녹화지역(綠化地域)으로 형성(形成)함으로써 정부(政府)로부터 사담산림설(沙潭山林楔)에 양여(讓與)를 받게 하는데도 노력(努力)을 다하였다. 또한 소류지(小溜池)와 제방공사사업(堤防工事事業)을 완수(完遂)하여 박토(薄土)를 옥토(沃土)로 전환(轉換)케 하니 주민소득증대(住民所得增大)는 물론(勿論) 지방개발(地方開發)에 큰

공헌(貢獻)을 하시었다. 공(公)은 순수(純粹)한 민간인(民間人)으로 제반공사(諸般工事)에 불차사재(不借私財)하고 주민(住民)을 대표(代表)하여 수십년간(數十年間) 정력(精力)을 다하였으니 그 지대(至大)한 위덕(偉德)을 영세불망(永世不忘) 기리고자 지방유지(地方有志) 제현(諸賢)이 뜻을 모아 송덕비(頌德碑)를 건립(建立)한다.

[전국회의원 겸 체신부장관(前國會議員兼遞信部長官) 곽의영(郭義榮)이
지은 碑文(碑文)에서]

부대(夫大)들의 모범(模範)된 효열(孝烈)을 기록(記錄)함

1. 숙인(淑人) 평산신씨(平山申氏) [감찰공(監察公) 휘(諱) 효동(孝東)의 부인(夫人)]

숙인(淑人) 평산신씨(平山申氏)는 신태중(申泰中)의 女로 장절공(莊節公) 신승겸(申崇謙)의 후손(后孫)이고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효동(孝東)의 배위(配位)이시다. 일찍이 부(夫)를 여의시고 부도(婦道)를 극진(極盡)히 지켜 오시다가 시부가 중환(重患)이시자 매야(每夜) 기도하고 약(藥)을 올리기를 게을리 하지 않다가 하루는 청수(清水)를 뜨니 잉어가 한 쌍 그릇 속에 있는지라 다려드리니 기운(氣運)이 회복(回復)되셨다. 또 시모의 임종 때에 손을 깨물어 주혈(注血)하니 잠시 연명(延命)하시었다. 유림(儒林)이 가상히 여겨 상소하니 숙인(淑人)의 직첩을 내리셨다.

2. 효부(孝婦) 해평윤씨(海平尹氏) [휘(諱) 종구(鍾九)의 부인(夫人)]

평소(平素) 부덕(婦德)이 높아 시부모 섬기기를 지성(至誠)으로 하시니 향리(鄉里)에서 칭송이 자자하였다. 사림(士林)에서 사담동(沙潭洞) 어구에 입비(立碑)하였고 민병승(閔丙承) 참판(叅判)이 비문(碑文)에 “효부(孝婦)의 정숙(貞淑)함이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感動)케 하는 바가 많으니 그 시부처사공(處士公)의 병환(病患)에 산까치가 영약이라는 말을 듣고 열심히 구(求)하던 중 하루는 부엌일을 하는데 까치 두 마리가 날아와 서로 싸우다 한 마리가 다쳐 나르지 못함에 그것을 잡아 공(公)에게 바치니 병(病)이 완쾌되더라. 왕맹(王孟)의 황(黃) 최(崔)의 생순(生筭)이 어찌 옛 사람만의 아름다운 행실(行實)일까? 이 모두 효감(孝感)의 소치로다.”라고 적었다.